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계15:1~8)

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제까지 3대 7중 재앙인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일곱 대접이 일어나기 전에 삽화 식으로 들어가 있는 계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7대접 재앙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15장 5절부터 일곱 대접이 일곱 천사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중 2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일어나게 될 재앙으로,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분위기와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666의 짐승이 바다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666의 표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666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를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시무시하게 쏟아질 건데, 그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노래의 내용은, 바로 666 짐승을 이긴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국면을, 대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내용으로부터, 내가 과연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666 짐승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666 짐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라면 표를 받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부족해서 잘 모르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고 벗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받아서 완전히 666의 인침을 받지 않더라도 이기고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그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666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도 한순간도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고, 내 스스로 이 세상의 일을 붙잡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돌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잠시도 죽일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몰입해도 안 될 판에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일들에 먼저 매여 있는 상태로 나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이 완전히 그 도시를 등지고 빠져나오듯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한순간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13장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나와 있지 않고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거짓선지자라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매매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다 거짓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이긴 자들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위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666 짐승을 이긴 자들, 그 영향력을 벗어난 자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가 보여 지는데, 유리바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4장에서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짐승을 이긴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있습니다.
2절의 '바다 가에 서서'에서 '가에'는 '에피'라는 헬라어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가 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 위에. 영어의 on.
근데 이 맥락에서는 바다 가라는 의미보다는 바다 위,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있는데, 그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4장에서 보좌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를 볼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의 거리를 말한 겁니다, 밧모 섬과 소아시아 사이에 지중해가 끼어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거리가 극복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측근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건 뭡니까?
왜 유리바다가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생각하시는 계획이나 하나님의 의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생겨서 유리바다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시려고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불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극복되고 하나님의 측근이 됐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의 측근이 돼서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느냐,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제목이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입니다.
어린양의 노래인데,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 배경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라는 걸 앞에 붙인 겁니다.
모세의 노래가 뭐지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이 뒤쫓아 온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역사를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을 그대로 빗대서 어린양의 노래로 갖고 오는 거예요.
어린양의 노래를 왜 부르느냐, 어린양의 노래도 노예상태로부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홍해라는 경계를 넘어서 빠져나오게 됐음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빗대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나 하면, 14장 3절에서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게 어

린양의 노래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14만 4천외에는.
근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잖아요.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속량을 받았는데, 땅에서 속량을 받고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맞는 생각이고 맞는 고백이지만 나중에는 추상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처음 죄에서 구원받을 때는 내가 잘못한 행위들에 대해서 구원받았고 그 죗값을 주님이 다 치러주심으로 해방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생각하는데, 믿음의 생활이 진행되다보면 다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 땅에 예속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과녁 삼아서 늘 보내져야 되는데, 죄는 이 땅에 하나님 대신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선택해서 이 땅으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연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면, 내가 저지른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해방된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매진하게 됩니다.
그게 죄거든요, 과녁이 빗나가고 있으니까.
이처럼 땅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진짜 죄로부터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자들이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땅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고, 이 땅을 지배하는 바로 왕이 누구냐 하면 666 짐승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밤낮 벽돌을 굽게 했던 바로 왕처럼, 모세가 와서 구원해내려니까 더 많은 벽돌을 구우라고 쉴 틈을 주지 않던 바로 왕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잠시도 죽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지 못하게 만든 것이 666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줄로 아는 것이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내가 한순간도 세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만 시간을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중단 없이 일만 시간을 투자하라’ 이게 666 짐승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땅에서.

우리 마음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다, 사람들 간의 평화를 이루어서 내가 평강을 이루겠다, 땅에서 내가 기쁨꺼리를 찾고야 말겠다, 성취하겠다, 이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린양에 의해서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측근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측근이 돼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나오는 얘깁니다.
그 노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서 어떤 마음상태인가를 알고, 지금 이 노래의 내용과 나를 빗대어서 내가 아직 이런 마음이 안 됐다면 온전한 측근이 못돼있는 거죠.
어린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따름이 아직 안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자, 노래 내용을 보니까 3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 위에서 인간들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크고 놀랍다, 언뜻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여러분 생각에는 크고 놀랍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피라미드라든지 아데미의 여신상이라든지, 이런 7대 불가사의가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만리장성을 불가사의로 넣는 사람도 있고 수나라 때 만들어진 운하를 넣는 사람도 있고, 잉카제국의 유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의라든지 칭기즈칸의 대제국이나 알렉산더의 대제국,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에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지 15년 만에 세계 IT 업계의 제2인자로 등극한 마윈의 알리바바, 자산이 2300억불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다 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글도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비하면 너무 너무 짧은 기간 아닙니까?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다 지구 안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어린양만 따랐을 뿐인데 날마다 어린양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아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지 아십니까?
7대 불가사의를 포함해서 인류 역사와 지금 현재 동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으악' 하는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지구 자체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그 지구가 갖고 있는 모든 매력을 이겨버리고 극복해버렸더라는 얘기에요.
칭기즈칸이 대제국을 이룬 것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한 것은, 지구를 극복해버렸습니다.
칭기즈칸이 해봐야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한 것 아닙니까?
마윈이 2300억불의 자산 규모의 회사를 갖게 되었다고 해도, 지구 안에서 점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측근이 돼서 보니까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한 점에 불과하게 보일 정도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무대인 지구 전체가 내 마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밀려나버렸어요.
이게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이 세상이 마음에서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지구를 이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우상이 바로 이 지구 안에서 인간들이 느끼고 갖고 싶어할만한 매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빌게이츠를 우러러봅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걸 그가 가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인기스타들에 열광합니까? 그들이 서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고 싶기 때문에.
지구에서 인간들에게 내뿜을 수 있는 매력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되라고.
근데 그 매력덩어리들 전체를 합쳐놓은 지구자체를 거뜬하게 내 마음에서 해치워버린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구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매력이 총망라된 왕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나처럼 되세요!' 이게 큰 일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지구를 이기고 점령해버렸습니다.
지구를 점령한다는 게 뭐에요, 지구가 갖고 있는 가치의 매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파악하고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측근이 돼서 하나님의 매력을 보니까.
도대체 나같이 시시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면 어린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측근이 된 사람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하는 유리바다가 극복되어 있는.
유리바다 위에 있다는 것은 그 거리가 극복되었다는 거죠, 발로 딛고 서있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사도요한 같은 경우, 이제까지 유대나라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유대민족이라는 소속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렸습니다.
어린양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다 보니까 유대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국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자신이 태어난 유대나라가 로마의 속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의 길입니다.
주의 길이고, 그게 의롭고 참되시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나라가 여전히 독립국가로 남아있으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대신에 이전의 이방세계와 선민의 나라를 구분하는 의식 속에 갇혀있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유대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로마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제국이 삼킨 유대나라 속에 어린양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의해서 로마제국이 정복돼버린 거예요.
즉, 유대나라를 정복한 로마가 어린양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가 우리한테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게 잘되는 건줄 알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서는 게 잘되는 건줄 알았고,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옆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다른 모든 나라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때로는 우리나라가 못 살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나라가 위협을 당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도 했고, 때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의로운 길이었더라 이겁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로 지명된 분이 그 비슷한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일본이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유대나라를 침공해서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교만한 막대기를 써서 선민을 다스리신 그 다스리심이 의롭다는 것이고, 한국 백성을 이 시대에 사명 받은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식민지와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수단이 의롭다는 것이지, 일본이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수단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의롭다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교만해요.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제3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들 스스로 섬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우리한테 뭐라 그럴 거냐? 헌법 구조도 다 뜯어고치려고 하잖아요.
이들이 의로운 게 아니죠.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식민지화하신 것에는 우리나라가 이씨조선으로 이어오던 것을 끊어내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국회가 생겼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국회를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씨조선의 고종황제를 이어서 계속 그 후손이 이어졌다면 유교가 지배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끊어내시고, 첫 번째 국회 개회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국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 측근이 돼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의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것도 기기묘묘한 말씀입니다.
거룩하시다는 게 뭐라고 했지요? 구분되는 겁니다.
나쁘게 구분되는 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꿈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666의 방법인데,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수면과 수평을 이루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과 달라지는 내일, 이게 바로 구분되는 것이고 좋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도록 구분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거룩하시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분의 측근이 되다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
영화롭게 한다는 건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왜 두렵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까봐.
여자들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화장하는 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 오래 걸립니까?
혹시 밉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까 두려우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측근이 된 다음에는 666 짐승의 궤계를 이긴 다음에는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얼 두려워하느냐?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닐까, 내가 말 한 마디 하

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날마다 어린양을 생각하며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정답이야,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마음에서 벗어나는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 찬양하고 권력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아, 이 노래의 내용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나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측근이 되어 이 하나님을 느끼는 대로 지금까지 말한 노래의 내용대로 살아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을 왜 경배하지 않을까? 왜 이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발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왜 '돈, 돈' 하고 살아갈까? 왜 '자식, 자식' 하고, '출세, 출세' 하며 살아갈까?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노래가 진행되는 것이고, 5절부터 나머지는 7대접의 재앙이 16장에서 진행될 때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의 노래를 오늘도 하루 종일 부르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돈 돈 돈 노래 부를 것이 아니고 건강 건강 건강 노래 부를 것도 아니고, 자식 자식 노래 부를 것도 아니고, 어린양 노래 부르면서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놀라며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